

사회

‘폐 손상’ 숨긴채 “무해” 광고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표시한 4개 업체·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당한 업체 옥시리켄티키저(제품명: 옥시썬 New가습기담뽀),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버터플라이팩트(세푸 가습기 살균제), 아토오가니(아토오가니 가습기 살균제)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고발한 4개 업체는 폐 손상을 유발하는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chloride)을 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시를 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와 동물 독성실험을 해 PHMG와 PGH가 폐 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PHMG나 PGH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 최소 10명이 폐질환으로 사망했다. 이들 업체가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는 모두 수거됐고, 현재 약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폭염, 9월초까지 간다

광주·전남 폭염주의보 속 열대야 현상 겹쳐 힘겨운 여름나기

광주·전남지역에 사흘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여름 무더위는 초가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월 중 폭염주의보는 지난해는 4차례, 2010년에는 3차례 발생했으나 올해는 이미 3차례나 발생해 시민들이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다. 연중 가장 더운 시기인 다음달 초순은 예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내릴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전망이다. 23일 기상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3개월 전망’에 따르면 9월 초까지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주면서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

질 것으로 보인다. 8월 초순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고, 국지성 강우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도 평년(26~27도)보다 높고, 강수량도 평년(47~94mm)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중·하순에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25~27도, 69~112mm)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됐다. 9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다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21~22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

(148~192mm)과 비슷하겠다. 10월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인다. 한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광주·전남지역의 23일 낮 기온은 나주 34.4도를 최고로 화순 33.9도, 구례 33.6도, 광주 32.8도, 곡성·영암 32.5도, 함평 32.3도 등 대부분 32도를 웃돌았다. 또 지난 22일 새벽부터 이날까지 이틀째 광주·나주·화순·영암·함평·목포·여수 등 광주·전남 7개 시군에 밤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23일 한낮 기온이 32도를 넘는 폭염속에서 광주시 북구청과 광주은행 직원들이 전남대 후문 앞에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펼쳐며 시민들에게 부채를 나눠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르노삼성 모호한 정년규정 법정다툼
판결따라 퇴직자에 임금 다시 계산해줘야

르노삼성자동차가 정년규정 때문에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판결에 따라서는 그동안 정년퇴직한 사원에게 임금을 다시 계산해줘야 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3일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2000년 말 취업규칙을 만들면서 ‘정년은 만55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31일로 한다’고 규정했다. 규정만 보면 정년은 만55세가 아니라 만56세가 되기 직전(만55세 11개월30일)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회사는 ‘만55세가 된(시작한) 해’를 기준으로 정년을 적용했고, 2010년까지 16명이 이 기준에 맞춰 퇴직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31

일 정년퇴직하게 된 김모씨가 처음 이의를 제기했다. 김씨는 취업규칙의 정년 기준은 55세가 끝나는 날이므로 올해 말 퇴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하고 구제신청을 냈다. 초심을 맡은 경기지방법노동위는 “정년 조항이 노사합의와 다르게 작으로 잘못 적혔을 뿐”이라며 르노삼성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는 르노삼성이 그동안 정년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며 초심 결정을 뒤집었다. 르노삼성은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연합뉴스

‘무등산 옛길’도 치안대책 서둘러야

제주 올레길 사건 여파...매일 수만명 북적 북적 불구 순찰 인력 없어 불안

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살해사건으로 올레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 ‘무등산 옛길’의 치안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무등산 옛길 사업을 진행, 현재 광주시 동구 산수동부터 무등산 서석대까지 총 11.87km, 3구간을 조성, 매일 수만명의 시민들이 찾고 있다. 대부분 무등산 옛길 구간이 차로에서 떨어진 인적이 드문 지역에 조성돼 있으나 정

기적으로 순찰하는 인력이 없는 것은 물론 폐쇄회로(CC)TV도 거의 설치되지 않아 치안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 필요한 CCTV도 무등산 탐방로 일부 구간에 설치된 5대뿐이다. 무등산 옛길을 자주 이용한다는 정모(여·52)씨는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지 않고 조망도 설치돼 있지 않아 조금만 어두워져도 하산할 수밖에 없

다”며 “주로 늦은 오후에 여성들이 옛길을 많이 찾는데 치안에 좀 더 신경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무등산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할 구역도 넓고 인력도 없어 치안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나 경찰 등과 협의해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추가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서 고교생 제 2외국어 교육

광주교육청, 올 200명까지 위탁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대학에서 제2외국어를 배우는 고교생 수를 2배 가량 늘렸다. 광주시교육청은 23일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과 협약을 체결, 제2외국어 대학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고교에 개설되지 않은 제2외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에

게 대학에서 강의의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올해는 수강생 수가 200명으로 지난해(110명) 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강대상은 27개 고교 1, 2학년 학생이며, 개설과목은 프랑스어·스페인어·아랍어·러시아어·독일어 등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36분, 해질 19시 42분, 달돋이 10시 37분, 달질 22시 25분. 오늘도 폭염. 낮 최고 34도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광주: 구름많음 25/33°C, 목포: 구름많음 24/31°C, 여수: 구름많음 24/30°C, 나주: 구름많음 25/34°C, 완도: 구름많음 24/32°C, 구례: 구름많음 24/33°C, 강진: 구름많음 24/32°C, 해남: 구름많음 24/33°C, 장흥: 구름많음 24/32°C, 순천: 구름많음 23/33°C, 영광: 구름많음 24/33°C, 진도: 구름많음 24/31°C, 전주: 구름많음 25/34°C, 군산: 구름많음 24/32°C, 남원: 구름많음 23/33°C, 옥산도: 구름많음 23/28°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주간날씨: 기상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연령별 인기 건강식품 조사해보니

비타민·홍삼·오메가-3

구매했던 10만원 이하 2%, 58.9%였다. 연령별로는 20~30대 젊은층의 경우 비타민과 무기질 제품 선호도가 높아 85.5% 이상의 높은 구매력을 보였으며, 홍삼 제품은 40대에서, 오메가-3지방산 제품은 50~60대에서, 글루코사민은 60대에서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위해 1년간 평균 지출한 금액은 ‘10만원 미만’이 32.8%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 뒤를 이었다. 구매자의 91.5%는 자신이 섭취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으며 응답자 5명 중 2명은 1년 이상 꾸준히 먹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환상제주 여행시즌 BIG HIT! 제주여행. 3년 연속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하는 짜릿한 제주여행~ 신비의 섬 “제주 탐방” 투어. 1일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 “환상제주” 피켓팅... 2일 호텔 조식 후 관광 - 성안악유계소 남만의 생물 “성남생” 시음 - 한라산 숲터널... 3일 호텔 조식 후 관광 - 탐라원(토산품점) - <선택관광>매직이일랜드 or 라스베가스 매직타이거쇼... 왕복 2박3일 (왕복 출발) 1인 ₩299,000~. 왕복 2박3일 (왕복 출발) 1인 ₩209,000~. 왕복 2박3일 (왕복 출발) 1인 ₩199,000~. 제주도골프투어=항공골프패키지 (1박2일) ₩449,000~ / 주말 ₩539,000~. ₩519,000~ / 주말 ₩609,000~. 환상제주 여행문의: 하이센스여행사 350-6222, 이유여행사 374-1881, 메이트투어 070-7093-0555, 한별투어 956-0045, 첨단/투어디자인 974-3050, 무등파크여행사 228-7470, 동구/다니엘여행사 227-7422.